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동향 분석

A Study o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Korea's LIS Fields

김 현 속 (Hyunsook Kim)*

강 보 라 (Bora Kang)**

< 목 차 >

I. 서론	IV. 분석 결과
II. 선행연구	V. 결론
III. 연구 설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동향을 2000년대와 2010년대로 나누어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회지에서 수집한 관련 논문 489편의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NetMiner4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2000년대의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이 빈도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10년대의 경우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공공도서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는 독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도서관 인프라 구축, 독서운동을 통한 독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면 2010년대에는 2000년대 노력과 연구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독서 연구와 다양하고 세부적인 독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특정 관중 도서관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연구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학제적 연구, 현장과 학계의 활발한 공동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독서, 연구 동향,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rend of reading research in Korea's LIS Fields in the past 20 years, divided into the 2000s and 2010s, by establishing a keyword network. To achieve this purpose,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489 related articles in the four major journals in the LIS field sourced from the 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KCI) and then analyzed using NetMiner4.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2000s, 'Public Library', 'Bibliotherapy', 'Reading Education', and 'School Library' showed high values of Frequency Analysis,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In the 2010s, 'Reading Education', 'School Library', 'Children', 'Adolescents', and 'Public Library' showed high values of the aforementioned measures. Second, in the 2000s, the establishment of library infrastructure for reading and reading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policies and systems, and reading research through the reading movement were actively conducted. In the 2010s, based on the work and research done in the 2000s, customized user reading studies and various detailed reading research were conducted. Third,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the restoration of humanity with creativity and imagin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ading research and professional in-dep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environments beyond public and school librarie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active joint research between the field and academia are needed.

KEYWORDS: Reading, Reseach Trends, Network Analysis, Keyword Network,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생(ahiran01@naver.com / ISNI 0000 0004 9296 3591)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brkang88@daum.net / ISNI 0000 0004 7707 0859)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0년 11월 22일 • 최초심사: 2020년 11월 26일 • 게재확정: 2020년 12월 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59-81,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5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6년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인류체제 자체가 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0년, COVID-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이버 세계로의 편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의 예언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슈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2017.4.27)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기술은 인간다움”이라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인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의 혁명이 되도록 이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문제해결력을 가지면서(신민식 2019, 153-154) 건강한 정신과 윤리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슈밥은 이어서 인간다움을 함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와 예술(중앙일보 2017.4.27)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발달학과 교수이자 독서와언어연구센터 소장인 매리언 올프는 독서에 대해 “주어진 정보를 뛰어넘어 아름답고 훌륭한 무한히 많은 사고를 창조하게 해 준다”(Wolf 2009, 33)고 말했다. 장령령과 홍현진(2014, 296)은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 뿐 아니라 창의력, 상상력, 자기문제해결능력, 평생학습능력, 건강한 심리 및 정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책 읽는 기계라고 일컬었던 엘빈 토플러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다며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독서에서 나온다고 한 빌 게이츠의 말은 유명하다.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학교 전체 혹은 학과 차원의 커리큘럼을 만든 곳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의무교육 13년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자마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요약문을 제출하면 사서교사는 해마다 학생의 독서리스트와 요약문을 통계내고 추천도서를 안내해준다.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은 독서능력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황금숙 2005b, 46). 미국의 독서 명문 세인트존스대학교의 커리큘럼은 4년 동안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며 독서노트 100권을 제출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한국 KAIST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융합기초학부에서 교육실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2021년 1학기부터 학점을 없애고 졸업 요건으로 우주, 자연, 인간, 사회, 기술, 예술 등에 관한 명저 100권을 읽고 서평을 쓰거나 동영상 제작하게 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0.10.13).

이처럼 독서가 다시 한 번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에 독서 분야 연구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김민채 김영환 2016, 7) 전통적으로 책과 독서에 강한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는 1999년 12월 밀레니엄을 앞두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직접 지시한 이후(이재경 2017, 1)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양적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동안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독서 연구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독서 분야 연구 동향(김관준 2011; 2015; 변희균 2013; 김종성 2013; 정령령, 홍현진 2014)과 국내 독서치료,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등 독서분야 특정 영역의 연구 동향이 있었다(황금숙 2005; 한복희 2007; 김소희, 서혜란 2017). 이상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전체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거나 문헌정보학 분야와 타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경향을 분석한 경우는 연구시점이 오래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 폭발적인 지식 정보의 증가, 학문간 융합연구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지난 20년 간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관련 연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저자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시기별(2000년대와 2010년대)로 비교 분석하여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연구 동향과 함께 해당 시기 핵심 연구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로 한정하여 독서 및 독서 분야 특정영역 연구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소희, 서혜란(2017)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국어교육학 분야 독서연구 경향을 정량분석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관련 학술지 6개의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 논문 138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량 측면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논문이 발표됐고, 유형별로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준(2015)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100년간(1914-2014)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대표적 학술 DB LISTA에서 검색한 논문 2,115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10년대 이후 국외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양적 질적 성장과 더불어 연구주제가 확장되고 세분화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및 재생산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디지털 형식 자료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로 정보학 이론 및 기법의 적용, 다양한 독자유형과 전자책,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자료 유형, 정보활용 측면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또한 교육학, 심리학, 언어학 등 타학문분야 문헌에 기초

한 연구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장령령, 홍현진(2014)은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추출한 독서 분야 학술지 논문 838편, 56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독서 분야는 독서운동, 독서교육의 이론, 독서요법, 독서교육 등 4개의 큰 주제와 독서진흥, 독서운동, 독서정책, 독서능력, 독서본질, 독서자료, 독서론, 독서동기, 독서요법, 자아존중감, 독서교육 등 11개 하위 주제로 구분하여 나타났다. 또한 독서분야 연구 동향이 독서교육의 이론에서 독서 본질에 대한 탐구,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 운동 범위의 확장, 대상과 형식의 다양성 등 심도 있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종성(2013)은 정량분석 및 내용접근 방법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경향을 연구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등 문헌정보학 분야 3대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독서분야 논문 191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학회지, 연구형태와 연구자 현황, 주제별, 연구 방법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발전을 위한 과제로 독서이론에 대한 연구 확대, 독서의 사회적 이슈의 연구에 대한 주도성 강화, 정량적 연구방법 일변도에 대한 연구 방법론의 적실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변희균(2013)은 키워드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독서분야 지적구조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DBPIA에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독서 키워드로 추출한 1,574건의 연속간행물 중 상위 3개 학문 분야, 문헌정보학, 한국문학, 교육학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특징, 연구방향 등을 분석한 후 교육학 분야와 공동연구,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독서관련 연구들을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현장에 적용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김관준(2011)은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 영역 및 동향을 파악하였다. DBPIA와 RISS4U(RISS)에서 검색한 연속간행물 기사(1,465건:1935-2011)와 학술지 논문(652건:2000-2011)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가 생산성과 다양성, 질적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 독서이론 연구, 독서 자료 개발 및 적용,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한복희(2007)는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장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총 5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학제적 주제의 독서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생산성 측면에서는 교육대학원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이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숙(2005)은 국회도서관 DB를 통해 검색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153편을 대상으로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자별, 연구유형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가 전체의 47.7%로 가장 활발하고 이어 교육학 17.6%, 유아·아동학 분야 15.7%, 상담심리학 분야 9.2% 순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독서치료 대상으로

유아·아동이 57.6%, 청소년과 성인이 각각 21.2%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독서 분야 및 독서 분야 특정영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체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거나 문헌정보학 분야와 타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 역시 연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 간 다양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시행,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 연구중심의 학제 개편 등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시기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독서 및 독서분야 특정영역 연구 동향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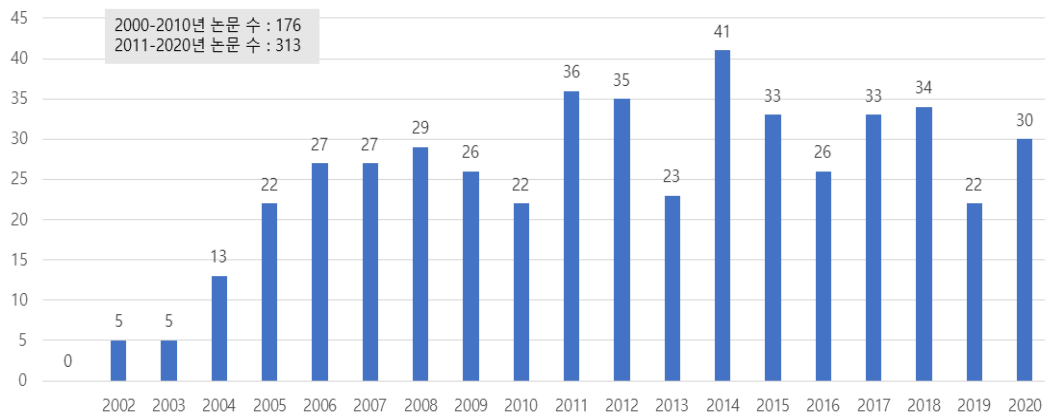
저자(연도)	제목	연구대상	연구방법
김소희, 서혜란 (2017)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문헌정보학분야와 국어교육학 분야 6개 학술지 창간호-2016년 논문 138편	정량분석 및 내용분석
김판준 (2015)	국의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DB LISTA 1914년- 2014년 100년간 논문 2115편	텍스트마이닝 기법
장령령, 홍현진 (2014)	학술지 중요도와 키워드 순서를 고려한 단어동시출현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KCI 추출 2003년-2012년 10년간 학술지 논문 838편	단어동시출현분석(군집분석, 다차원척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김종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경향과 과제	문헌정보학분야 3대 학회지 창간호-2012년 학술논문 191편	정량분석 및 내용접근 방법
변희균 (2013)	키워드 프로파일링을 통한 분야별 국내독서 연구방향 분석	DBPIA 문헌정보학, 한국문학, 교육학 분야 1998년-2012년 연속간행물 1574건	키워드 프로파일링 기법
김판준 (2011)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영역 분석	DBPIA와 RISS 추출 연속간행물 기사(1465건:1935-2011), 학술지 논문(652건:2000-2011)	저자프로파일링
한복희 (2007)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	국회도서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장 학위논문 중 해당 주제 53편	내용분석
황금숙 (2005)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국회도서관DB 검색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153편	정량분석

Ⅲ. 연구 설계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동향을 2000년대(2001-2010)와 2010년대(2011-2020)로 나누어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독서'를 입력하여 검색된 논문 중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술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지난 20년 간 게재된 논문을 추출하였다. 그 중 저자 키워드가 없거나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고 총 489편의 논문과 1,461개의 저자 키워드(2000년대 논문 178편·저자 키워드 481개, 2010년대 논문 313편·저자 키워드 980개)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논문의 연도별 편수 및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편수 및 추이

연도별 논문 편수 및 추이를 보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시행된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2003-2007),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동시에 시행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1년 『초중등독서활성화 방안』 시행 등으로 논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의 2차 정책이 시작되는 2014년에는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논문 41편이 발표돼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표 2> 학술지별 논문 편수

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계
2000년대	93	54	33	8	178
2010년대	129	73	88	24	313
계	213 (43.5%)	127 (26.0%)	117 (24.0%)	32 (6.5%)	489(100)

학술지별 논문 수록 편수는 <표 2>와 같다. 학술지별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213편이 수록돼 있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시기별로 나누어 학술지별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93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편, 『정보관리학회지』 8편 등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2010년대에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29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88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73편, 『정보관리학회지』 24편이 수록되었는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게재율이 2000년대 대비 크게 상승했다. 학술지별 논문 수록 현황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서 분야 연구자의 투고 선호 학술지를 알 수 있다(김종성 2013, 105).

2. 분석 방법

국내 독서분야 학술논문의 저자 키워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가 부여한 각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선정한다.

둘째, 수집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정제작업을 거쳐 표준화한다.

- 1) 키워드 교정 작업을 한 후 모든 키워드는 띄어쓰기를 없애서 동일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다.
- 2) 검색어로 사용한 '독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 3) 특정지명이나 국가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 서울시, 성북구, 한국, 시애틀 리즈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동일한 의미로 쓰인 유사어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한다. 예) '자기주도적학습', '자기주도',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적학습태도', '자기주도학습'은 '자기주도학습'으로 통일한다. '독서회', '독서동아리'는 '독서동아리'로 통일한다. '독서진흥', '독서문화진흥'은 '독서문화진흥'으로 통일한다.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취약계층', '소외계층'은 도서관법 제43조에 의거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통일한다. '독서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를 '정보리터러시'로 통일한다. '지역사회독서운동', '지역사회운동'은 '지역사회독서운동'으로 통일한다. '대중독서운동',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 '독서대중화운동'은 '독서대중화운동'으로 통일한다. '독서지도', '독서교육'은 '독서교육'으로 통일한다.
- 5) 동일한 정책의 여러 표기들은 공식 명칭으로 통일한다. 예) '한책, 한도시'운동, '한책한도시'독서운동, '한도시독서운동' 등은 "한책한도시'독서운동"으로 통일한다.
- 6) 이용자층의 경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 나오는 생애주기 용어로 통일한다. '초등학생', '어린이', '아동'은 '어린이'로 통일하고, '미취학 아동', '유아', '영아'는

‘영유아로’ 통일하며 ‘중학생’, ‘고등학생’, ‘여고생’은 ‘청소년’으로 통일하고 ‘중년기’, ‘주부’, ‘성인’, ‘중년 여성’, ‘일반인’, ‘일반’은 ‘장년’으로 일치시킨다. ‘노년기’, ‘노인’, ‘어르신’, ‘고령자’는 ‘노년’으로 통일한다. 다만 ‘청년’의 경우 대학생 이외의 청년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 ‘여대생’은 ‘대학생’으로 통일한다.

〈표 3〉 키워드 정제작업과 사례

구분	작업 전	작업 후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서울시, 성북구, 한국, 시애틀 리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유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적학습태도, 자기주도학습 •독서회, 독서동아리 •독서진흥, 독서문화진흥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소외계층 •독서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지역사회 독서운동, 지역사회 운동 •대중독서운동, 독서 대중화 운동 •독서지도, 독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학습 •독서동아리 •독서문화진흥 •지식정보취약계층 •정보리터러시 •지역사회독서운동 •독서대중화운동 •독서교육
공식명칭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책, 한도시’운동,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한도시독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책한도시’독서운동
이용자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학 아동, 유아, 영아 •초등학생, 어린이,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여고생 •대학생, 여대생 •중년기, 주부, 성인, 중년 여성, 일반인, 일반 •노년기, 노인, 어르신,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장년 •노년

IV. 분석 결과

1. 빈도 분석

표준화 과정을 통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저자 키워드는 2000년대 논문 176편에서 추출된 총 481개이고, 2010년대 논문 313편에서 추출한 총 980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00년대 논문과 2010년대 논문의 빈도분석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2000년대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이 46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이어 ‘독서치료’가 36회, ‘독서교육’이 36회, ‘학교도서관’이 29회, ‘어린이’가 18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과 독서치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 '독서교육'이 60회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고 '학교도서관'이 52회, '어린이'가 41회, '공공도서관'이 36회, '독서치료'가 34회,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독서교육 및 독서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한책한도시"독서운동, '독서문화진흥', '사서교사', '독서프로그램', '대학생' 등의 키워드가 동시에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들 중 '학교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사서교사'는 2000년대보다 2010년대의 순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보였던 '지역사회독서운동', '독서운동', '도서관정책' 등이 2010년대 순위에서는 보이지 않고, 2010년대 순위권에 진입한 키워드는 '독서태도', '장애인', '독서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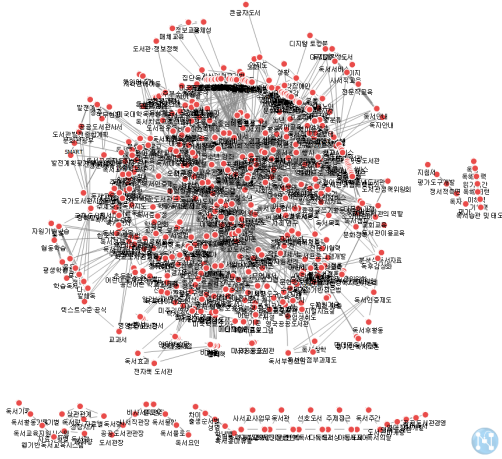
〈표 4〉 상위 15개 출현 키워드

순서	2000년대(2001-2010)	키워드 수	2010년대(2011-2020)	키워드 수
1	공공도서관	46	독서교육	60
2	독서치료	36	학교도서관	52
3	독서교육	36	어린이	41
4	학교도서관	29	공공도서관	36
5	어린이	18	독서치료	34
6	독서치료프로그램	10	청소년	30
7	청소년	9	독서프로그램	25
8	'한책한도시'독서운동	8	사서교사	25
9	독서문화진흥	8	독서태도	16
10	지역사회독서운동	7	독서문화진흥	12
11	사서교사	7	장애인	11
12	독서프로그램	7	성격유형	10
13	독서운동	6	'한책한도시'독서운동	9
14	대학생	6	대학생	9
15	도서관정책	6	독서문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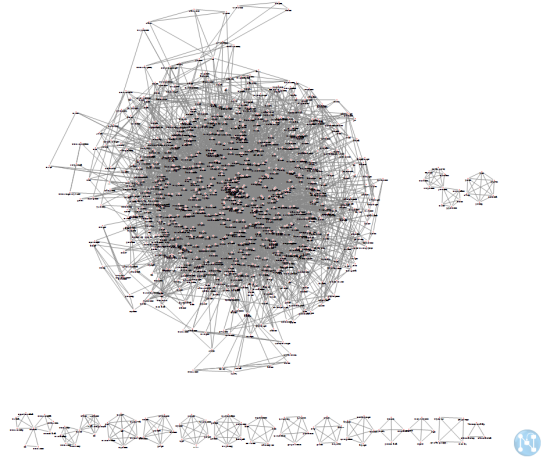
2. 키워드 네트워크

2000년대 논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481개의 노드와 1,520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대 논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980개의 노드와 1,652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2〉, 〈그림 3〉 참조).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상위 10%)로 제한하여 〈그림 4〉, 〈그림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키워드 네트워크를 표현하였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1권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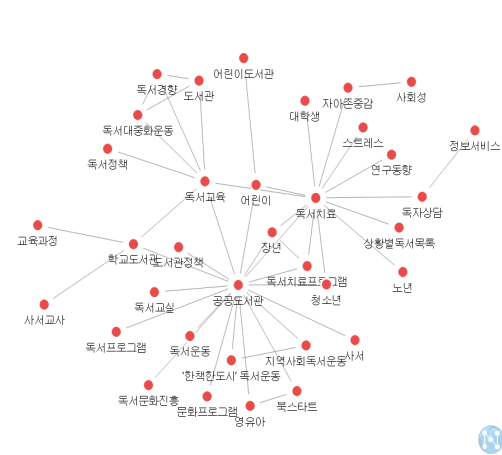


〈그림 2〉 2000년대 전체 키워드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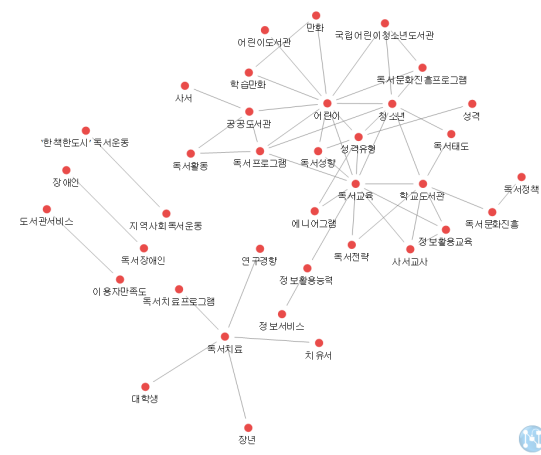


〈그림 3〉 2010년대 전체 키워드네트워크

2000년대 논문의 경우(그림 4),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등의 세부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대학생’, ‘노년’, ‘장년’, ‘스트레스’ 등의 세부영역과 링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장년, 노년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독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정책’ 등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000년대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3회 이상 출현)



〈그림 5〉 201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 (3회 이상 출현)

2010년대 논문의 경우(그림 5),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의 키워드가 중심이 된 네트워크 구조를 볼 수 있다. '독서교육'은 '성격유형', '청소년', '어린이'로 연결되어 있고, '어린이'는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교육' 등과 연결되어 있다. 2000년대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독서교육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 '독서전략', '청소년' 등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독서치료'와 관련된 세부영역의 연구는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2000년대 논문의 경우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이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전체 키워드 중 상위 빈도로 조사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키워드 간의 연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대 논문의 경우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 간의 동시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유형과 에니어그램 간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성격유형 검사 중 에니어그램에 편중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노드 간의 동시출현 빈도(Weight) (상위 15개)

순서	2000년대(2001-2010)			2010년대(2011-2020)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11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19
2	독서치료	독서치료프로그램	9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18
3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독서운동	6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10
4	독서치료	공공도서관	6	어린이	독서교육	9
5	어린이	공공도서관	5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9
6	공공도서관	독서치료프로그램	5	어린이	공공도서관	8
7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진흥	5	독서치료	독서치료프로그램	7
8	공공도서관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5	청소년	독서교육	6
9	공공도서관	지역사회독서운동	5	성격유형	독서교육	6
10	독서교육	독서치료	5	성격유형	에니어그램	6
11	독서교육	도서관	5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	6
12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5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독서운동	6
13	독서운동	공공도서관	4	청소년	학교도서관	5
14	공공도서관	영유아	4	독서교육	사서교사	5
15	공공도서관	청소년	4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어린이	4

2000년대와 2010년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구체적 특성은 아래의 분석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통해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얼마나 연결된 링크를 갖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임유경 2020, 38; 이성신 2016, 392),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이 많고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은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들의 연결중심성을 나타낸 것이고, 이를 토대로 <그림 6>, <그림 7>과 같이 표현하였다. 연결중심성 값에서 노드의 크기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크고, 링크가 굵게 표현된 것은 노드 간의 연계 정도를 나타내는 Weight값이 높을수록 굵게 표현된다. 노드가 크고 링크가 굵다는 것은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다는 뜻이다.

<표 6>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값 (3회 이상 출현 상위 15개)

순위	2000년대(2001-2010)	Degree Centrality	2010년대(2011-2020)	Degree Centrality
1	공공도서관	0.0375	독서교육	0.011236
2	독서치료	0.027083	어린이	0.011236
3	독서교육	0.014583	청소년	0.008172
4	학교도서관	0.008333	학교도서관	0.00715
5	독서경향	0.00625	성격유형	0.006129
6	독서대화운동	0.00625	독서프로그램	0.005107
7	도서관	0.00625	독서치료	0.005107
8	독서치료프로그램	0.00625	공공도서관	0.004086
9	장년	0.00625	정보활용교육	0.003064
10	어린이	0.00625	사서교사	0.003064
11	독자상담	0.004167	독서성향	0.003064
12	청소년	0.004167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0.003064
13	자아존중감	0.00416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0.003064
14	영유아	0.004167	정보활용능력	0.002043
15	복스타트	0.004167	에니어그램	0.002043

(1) 200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

200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그림 6)은 ‘공공도서관’이 가장 높고 다른 키워드들과 가장 많은 연결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 연결중심성은 ‘독서치료’, ‘독서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나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 ‘독서운동’, ‘도서관정책’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들어서 시행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학교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노동조(2007)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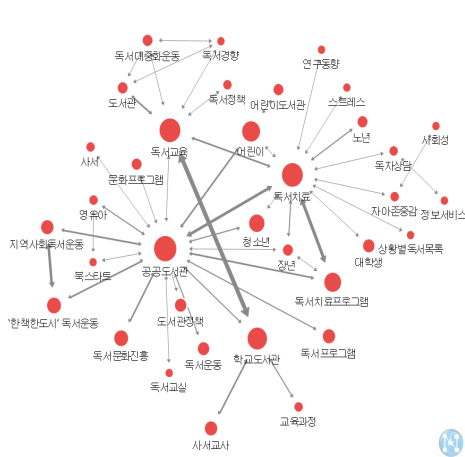
노드 간 연결된 링크는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선이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이병기(2008)의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 범주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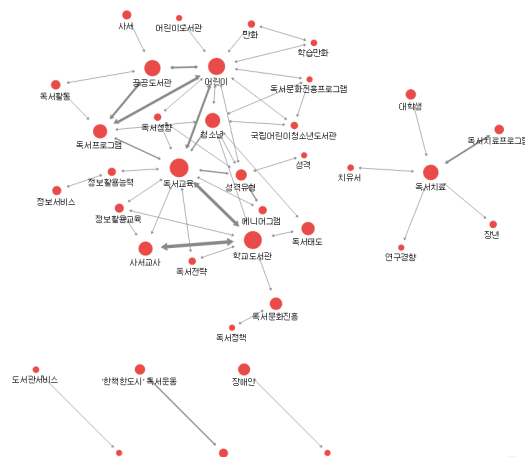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던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의 연결중심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이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201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

201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그림 7)은 ‘독서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어린이’, ‘청소년’, ‘학교도서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0년대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독서교육이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였음을 보여준다. 노드 간 연결된 링크는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선이 굵게 표시되어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서진원(2013)의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전략들과 창의성 기법들을 유형화하여 독서교육에 융합한 연구와 변우열, 송기호(2014)의 창의적 글쓰기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용 학습독서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관한 논문으로는 이연옥(2020)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사서교사 역할 및 자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가 있다.



<그림 6> 200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3회 이상 출현)



<그림 7> 201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3회 이상 출현)

200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과 비교해 보면 ‘성격유형’, ‘사서교사’, ‘독서성향’ 등이 2010년대에 새롭게 진입하였는데 이는 성격유형 혹은 독서성향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독서교육 연구가 이루어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지발달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과 독서성향을 연구한 이은경과 김기영(2017)의 논문이 있다. 한편, ‘장년’과 ‘영유아’ 키워드가 2010년대 순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연결중심성 값이 1위였던 공공도서관이 2010년대 연구에서 8위로 하락한데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대상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연구논문이 줄어든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

매개중심성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키워드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해 주고 서로 다른 하위주제로 확장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뜻이며, 새로운 연구주제 탐색, 통섭적 연구 주제선정 시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이성신 2016, 395; 임유경 2020, 46). <표 7>은 키워드들의 매개중심성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그림 8>, <그림 9>와 같이 표현하였다.

<표 7> 키워드의 매개중심성 값 (상위 10개)

순위	2000년대(2001-2010)	Node Betweenness	2010년대(2011-2020)	Node Betweenness
1	공공도서관	0.628342	독서교육	0.000247
2	독서치료	0.491087	어린이	0.000215
3	독서교육	0.245989	학교도서관	0.000112
4	학교도서관	0.115865	청소년	0.000102
5	독자상담	0.058824	독서프로그램	0.000061
6	자아존중감	0.058824	성격유형	0.00006
7	어린이	0.058824	공공도서관	0.000055
8	정보서비스	0.000000	정보활용능력	0.000048
9	사회성	0.000000	독서문화진흥	0.000048
10	문화프로그램	0.000000	독서치료	0.000021

(1) 2000년대 논문의 매개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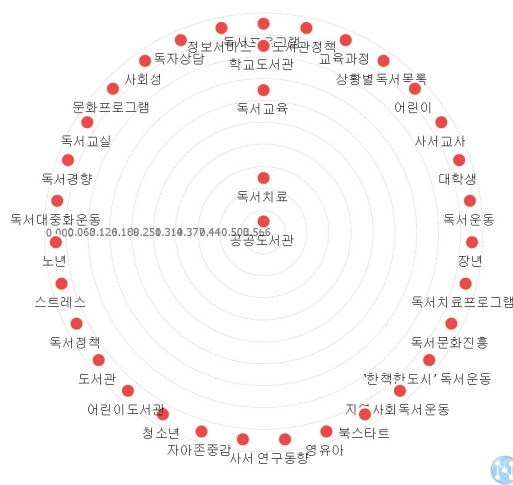
2000년대 논문의 매개중심성(그림 8)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공공도서관’으로 0.628342의 지수를 보이며, 이어서 ‘독서치료’ 0.491087, ‘독서교육’ 0.245989, ‘학교도서관’ 0.115865 순으로 나타나 이들 키워드들이 서로 다른 하위 주제로 확장하는 2000년대 핵심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박금희와 정연경(2006)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와 조미아(2006)의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이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편, 200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의 빈도분석과 연결중심성 값을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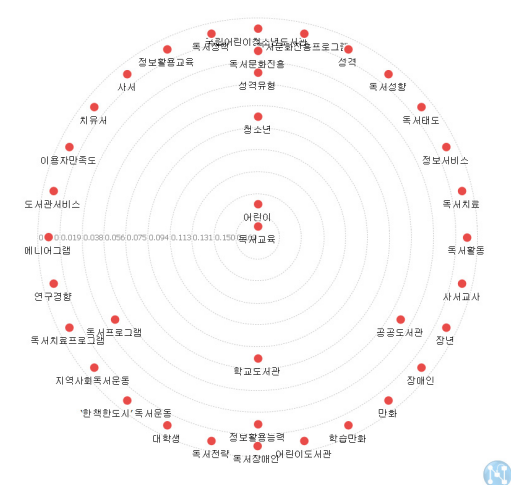
‘청소년’은 매개중심성 순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전체 키워드에서 낮은 빈도수를 보였던 ‘자아존중감’은 연결중심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매개 역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하위 주제들을 매개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독서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서치료가 어린이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성희와 김송이(2008)의 연구가 있다.

(2) 2010년대 논문의 매개중심성

2010년대 논문의 매개중심성(그림 9)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독서교육’으로 0.000247의 지수를 보였고, 이어서 ‘어린이’ 0.000215, ‘학교도서관’ 0.000112, ‘청소년’ 0.0001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결중심성도 높은 이들 키워드 ‘독서교육’, ‘어린이’, ‘학교도서관’, ‘청소년’은 2010년대 국내 문헌정보학 독서 분야의 세부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매개하여 확장성이 큰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매개중심성 값에서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의 경우 2010년대에는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웹터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탈북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대상 독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8〉 2000년대 논문의 매개중심성 분석 (3회 이상 출현)



〈그림 9〉 2010년대 논문의 매개중심성 분석 (3회 이상 출현)

2000년대 매개중심성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변화는 ‘정보활용능력’이 순위권에 나타난 것이다. 연결중심성 역시 높게 나타난 ‘정보활용능력’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필수능력으로, 정보활용능력과

독서역량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송기호(2017)의 정보처리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수록 매체 분석과 정보활용능력 향상 방안 연구와 박주현(2018)의 디지털 독서 및 정보리터러시 평가문항 분석을 통한 독서 및 정보서비스의 방향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2000년 이후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연구 동향을 10년 단위(2000년대와 2010년대)로 나누어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로 한국학술지색인 KCI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술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 독서 연구 489편을 대상으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 1,461개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0년대 논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481개의 노드와 1,520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대 논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980개의 노드와 1,652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양적 성장과 더불어 독서분야의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등의 세부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대학생', '노년', '장년' 등의 세부영역과 링크되어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장년, 노년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독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논문의 경우,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 '공공도서관'의 키워드가 중심이 된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독서교육'은 '성격유형', '청소년', '어린이'로 연결되어 있고, '어린이'는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성향' 등과 연결되어 있다. 2000년대와 더불어 어린이 독서교육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빈도분석 결과 2000년대 논문의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는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와 2010년대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한책한도시"독서운동, '독서문화진흥', '사서교사', '독서프로그램', '대학생' 등의 키워드가 동시에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들 중 '학교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사서교사'는 2000년대보다 2010년대 순위가 올라

값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보였던 '지역사회독서운동', '독서운동', '도서관정책' 등이 2010년대 순위에는 나타나지 않고, 2010년대 순위권에 진입한 키워드는 '독서태도', '장애인', '독서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200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치료 및 독서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 '독서운동', '도서관정책' 등 세부영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2000년대 들어서 시행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학교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던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의 연결중심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이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독서교육', '어린이', '청소년', '학교도서관' 순으로 나타나 이들 키워드들이 2010년대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대 새롭게 진입한 연결중심성에는 '성격유형', '사서교사', '독서성향' 등이 있는데, 이는 성격유형 혹은 독서성향에 따른 맞춤형 독서교육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년'과 '영유아' 키워드가 2010년대 순위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는 2000년대 연결중심성이 1위였던 공공도서관이 2010년대 연구에서 8위로 하락한데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들 대상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논문이 줄어든 것에서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2000년대 논문의 경우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빈도와 연결중심성에서 순위에 있던 '청소년'은 매개중심성 순위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전체 키워드에서 낮은 빈도수를 보였던 '자아존중감'은 연결중심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매개 역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주목해야 하는 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0년대 논문의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독서교육', '어린이', '학교도서관',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연구의 연결중심성도 높은 이들 키워드 '독서교육', '어린이', '학교도서관', '청소년'은 국내 문헌정보학 독서분야의 세부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매개하는 즉 확장성이 큰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매개중심성 값에서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의 경우 2010년대에는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쉽터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탈북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주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대상 독서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주요 변화로 연결중심성 역시 높았던 '정보활용능력'이 순위권에 나타난 것인데 이는 스마트 환경에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독서역량을 배양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밀레니엄을 앞두고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으로 다양한 독서 및 도서관 정책이 시행되었던 2000년대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는 양질의 독서 및 독서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독서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의 연구와 노력을 기반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독서연구, 특히 이용자 및 독자 중심의 맞춤형 독서교육 연구를 도서관 기반 현장에 적용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 AI기반 개인 맞춤형 독서교육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0년대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장년, 노년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독서 연구가 눈에 띄지만 2010년대의 경우는 장년, 영유아 등이 순위권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논문이 줄어든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계와 현장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효과가 검증된 양질의 독서교육을 선순환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0년대와 2010년대 두 시기에 걸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빈도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값 모두 최상위권에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는 특정 관종의 도서관 중심 특히 관 주도형 독서 연구 중심이라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서를 통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진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연구와 더불어 더욱 전문성을 요하는 학제적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동향 분석을 저자키워드를 대상으로 한 점, 키워드 정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다소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학위논문과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를 시기별로 비교하여 거시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핵심주제와 확장성 주제를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민채, 김영환. 2016. 국내 독서교육 관련연구 동향에 대한 교육공학적 분석. 『독서연구』, 41: 9-47.
- 김성희, 김송이. 2008.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13-226.
- 김소희, 서혜란. 2017.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363-392.
- 김중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99-124.
- 김관준. 2011.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영역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1-44.
- 김관준. 2015. 국외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69-97.
- 노동조. 2007.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165-179.
- 박금희, 정연경. 2006.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53-368.
- 박주현. 2018. 디지털 독서 및 정보 리터러시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독서 및 정보 서비스의 방향 탐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61-89.
- 변우열, 송기호. 2014. 창의적 글쓰기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용 학습독서 전략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25-147.
- 변희균. 2013. 키워드 프로파일링을 통한 분야별 국내독서 연구방향 분석. 『한국독서교육학회지』, 1(1): 51-66.
- 서진원. 2013.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창의성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261-286.
- 송기호. 2017. 정보처리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수록 매체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1): 5-23.
- 신미식.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 평생교육. 『한국동북아논총』, 24(1): 145-163.
- 이병기. 2008.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 범주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139-159.
- 이성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연구 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 지』, 50(3): 383-402.
- 이연옥. 2020.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사서교사 역할 및 자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81-102.
- 이은경, 김기영. 2017. 인지발달에 따른 도서관 이용과 독서성향 연구: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3): 179-207.
- 이재경. 2017. 『학교도서관정책 연구 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 임유경. 2020. 『국내·외 청각장애 관련 음악연구의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동향 분석 - 주요 핵심어와 중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전공.
- 장령령, 홍현진. 2014. 학술지 중요도와 키워드 순서를 고려한 단어동시출현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95-318.
- 조미아. 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53-71.
- 한복희. 2007.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201-215.
- 황금숙. 2005a.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17-130.
- 황금숙. 2005b. 독서, 개인-국가경쟁력,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41-51.
- 클라우스 슈밥 “모든 혁명엔 승자와 패자가 있다”. 2017. 『중앙일보』. 4월 27일.
- ABCD 학점 없애는 대신 책 100편 서평 내야 졸업. 2020. 『동아일보』. 10월 13일.
- Wolf, Maryanne. 2009. 『책 읽는 뇌』. 이희수 옮김. 서울: 살림. (원서 출간 2007)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eon, Hoi-Kyun. 2013.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Korea Using Keyword Profiling.” *Journal of the Reading Education Society*, 1(1): 51-66.
- Byun, Woo-Yeoul and Gi-Ho Song. 2014. “Development of Reading Strategies to Learn for Integrating Reading and Writing through Creative Writ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25-147.
- Cho, Miah.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Instruction on the Creative Ability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 and Information Science*, 40(3): 53-71.
- Hahn, Bock-Hee. 2007.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Young People Bibliotherapy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201-215.
- Hoang, Gum-Sook. 2005a.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117-130.
- Hoang, Gum-Sook. 2005b. "Reading, Individual-National Competitiveness." *National Assembly Culture and Tourism Committee*, 41-51.
- "Instead of eliminating ABCD credits, graduates have to pay 100 book reviews." 2020. *The Dong-A Ilbo*. October 13.
- Kim, Jong-Sung. 2013. "Trends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99-124.
- Kim, MinChae and YoungHwan Kim. 2016. "Research Trends Analysis of Korean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Educational Technology between 2011 and 2015."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1: 9-47.
- Kim, Pan Jun. 2011. "Domai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Korea Using Author Profil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1-44.
- Kim, Pan 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 Kim, Seonghee and Songi Kim. 2008. "A Study on the Bibliotherapy for Develop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213-226.
- Kim, Sohee and Hye-Ran Suh. 2017.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Programs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363-392.
- Lee, Byeong-Ki. 2008. "A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Reading Strategies for Reading Instruction in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139-159.
- Lee, Eunkyung and GIYEONG, Kim. 2017. "A Study on Library Use and Reading Tendency

- According to Cognitive Development: Focused on Fourth and Sixth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3): 179-207.
- Lee, Jae Gyeong. 2017.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of the School Library Policy*. M.A.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Lee, Seongsin. 2016. “A Study on the Library Marketing Research Trend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383-402.
- Lee, Yoen-Ok. 2020. “Perception on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eacher Librarians Based on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81-102.
- Lim, You Kyoung.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of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on Music Related to Hearing Impairment-Focusing on Major Keyword and Centrality*. M.A. thesis, Gachon University, Korea.
- Noh, Dong-Jo. 2007. “A Study on Propriety Evaluation on Library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ith SMART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165-179.
- Park, Juhyeon. 2018.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ading and Information Service through Analysis of Digital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ies Evaluation Items: Focusing on PIAAC and PI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3): 61-89.
- Park, Keum-Hee and Yeon-Kyoung Chung. 2006.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Bibliotherapy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353-368.
- “Remaining Optimistic in the Face of Great Upheaval.” 2017. *Korea Joong Ang Daily*. April 27.
- Shin, Mee-Shik. 2019.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ifelong Education.” *School Education, Social Chang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4(1): 145-163.
- Song, Gi-Ho. 2017. “An Analysis of Media in the Elementary Moral Textbooks by the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1): 5-23.

- Suh, Jin-Won. 2013. "A Study on an Application of Creative Skill to Reading Instruction in the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261-286.
- Wolf, Maryanne. 2009. *PROUST AND THE SQUID: The Story and Science of the Reading Brain*. Translation by Heesoo Lee. Seoul: Sallim. (Original Book Publication 2007)
- Zhang, Ling Ling and Hyun Jin Hong. 2014.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ading Studies with C0-Word Analysis Based on the Importance of Journals and Sequence of Keywor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295-318.